

음악·미술 연계 초등 프로그램 개발*

김 용 희**

음악과 미술교과는 둘 다 학습자의 심미적 경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함께 연계하여 학습하기에 적절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위한 음악·미술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교과 연계 학습에 관련된 이론과 쟁점을 먼저 고찰하고, 먼로(Munroe, 2015)가 제안한 단계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예술의 서구화라는 공통 주제에 근거하여 폴리네시아의 음악과 미술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문화 음악 학습의 폭과 깊이를 더하며 음악의 역사·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교과 연계교육, 다문화 음악교육, 음악·미술 연계 프로그램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음악을 '이용한' 연계교육
2. 음악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육

III. 음악·미술 연계 프로그램

1. 연구 절차
2. 세부 내용
3. 프로그램 실제

IV. 결론

참고문헌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의 교내 학술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I. 서론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예술 영역 및 교과와 연계할 것을 권장한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춤, 미술, 연극, 영화, 문학 등 다른 예술 영역과 연계한 음악 학습이 “학생의 문화적 소양”을 높인다고 말한다(교육부, 2015, p. 4). 또한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예술 영역 및 교과와의 연계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음악 지식을 심화시키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학습 경험을 확장시킨다”고 말한다(교육부, 2015, p. 4).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심 예술 성취 기준(Core Arts Standard) 역시 “다른 예술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예술과 다른 지식 사이의 패턴과 관계를 탐구하고 구별하는 습관”(National Coalition for Core Arts Standard, 2014, p. 10)을 가지라고 권한다.

여러 교과목을 서로 연계하는 교육 중에서도 특별히 음악, 미술 등 예술 영역의 교과 연계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모든 예술 영역이 ‘심미적’ 경험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공통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Swansick, 1999; Pavlov and Athanasiou, 2015, p. 6, 재인용). 무카로브스키(Mukarovsky, 1978)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나라의 문화에서든 예술은 고립되지 않는다. 그림과 조각은 문학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음악이 연결되며, 그 다음 다른 예술이 연결된다”(Ward-Steinman, 1989, p. 5, 재인용). 에이블레스, 호퍼 및 클로트맨(Abeles, Hoffer & Klotman, 1995)은 모든 예술 영역이 동일한 존재이유와 가치를 가지며, 동일한 ‘시대정신(Zeitgeist)’를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미국의 핵심 예술 성취 기준의 권장, 예술 영역 상호간의 연계성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에 힘입어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음악·미술 연계 프로그램을 구안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의 구안을 위하여 연구자는 먼로(Monroe, 2015)가 제안한 3단계의 실천 과정을 적용한다. 먼로(2015)의 3단계 실천 과정은 또한 브레슬러(Bresler, 1995)가 제안한 동등한(Co-Equal) 연계 유형과 관련된다. 이에 앞서 본 연구는 예술 연계 교육에 관련된 이론과 논쟁점을 고찰한다.

예술 연계 교육의 이론이나 실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시되었다(김희숙, 장인한, 2009; 노용, 2005; 박지원, 2002; 주대창, 2002; 한윤이, 2006; An, Capraro, & Tillman, 2013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연계 교육은 아직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석상아, 2015; Bautista, Tan, Ponnusamy, and Yau, 2016; Russel-Bowie, 2006; Wong, 2012). 본 연구는 음악·미술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장에 대한 또 하나의 실천적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연구는 먼로(2015)의 단계를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타 연구들과 차별된다.

II. 이론적 배경

교과 연계 교육은 1920년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운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유한구, 김승호, 1999).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심리학의 구성주의와 다중지능이론은 다시금 교과 연계 교육에 관심을 새롭게 하였다.

구성주의 심리학의 강조점은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하며 의미를 부여할 것, 그리고 학습이 실생활과 관련을 가질 것 등이다(Brooks and Brooks, 1999). 실생활과 관련된 학습에서 학생들은 “실생활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몇 개의 교과 영역에 걸쳐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교수법”을 통하여 실제 세계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다(Bautista, Tan, Ponnusamy & Yau, 2016, p. 611).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각 교과에서 학습한 지식 정보를 분리하여 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Munroe, 2015). 우리는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모든 학생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강점 지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도 교과 연계 교육을 옹호한다.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에게 다중적이고 다양한 지능들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며, 학습의 상황에서 정보를 다양한 양태로 제공하는 것이 한 가지 양식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Eteokleous, Pavlov, & Tsolakides, 2011). 각 학생이 자신의 강점 지능을 사용하여 정보를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지능 중 특별히 음악적 지능과 공간적 지능을 사용하는 예술 교과는 다른 교과들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석상아, 2015). 왜냐하면 예술은 심상과 개념을 연결시키고 감각과 사고를 관련시키는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ad, 1958, 석상아, 2015, p. 9, 재인용).

20세기 후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교과 연계 교육을 옹호하는 주장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이 학습자의 흥미, 자신감, 참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노용, 2005 등).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우리나라 음악 교사들

은 아직 음악 교과와 타 교과를 연계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석상아(2015)는 우리나라 음악 교사들은 음악과 타 교과를 연계하는 교육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거부감이나 압박감을 나타낸다고 보고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의 음악교육가들도 지난 30여 년 동안 음악과 타 교과를 연계하는 교육에 대하여 찬·반 논쟁을 벌여 왔다. 이하에서는 음악과 타 교과를 연계하는 교육에 대하여 학자들이 벌인 논쟁을 고찰한다.

1. 음악을 ‘이용한’ 연계교육

브레슬러(1995)는 음악을 연계하는 교육적 접근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다. 그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유형은 음악을 ‘이용한’ 연계교육에 속한다.

브레슬러(1995)가 분류한 첫 번째 유형은 부차적(Subservient) 접근이다. 이 유형에서는 음악이 다른 학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각 나라의 수도 이름을 노래로 부르거나 이 닭기를 권장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의적(Affective) 접근 유형으로서, 이것은 학습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 통합적(Social Integration) 접근 유형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기능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공휴일 중 하나인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탄생일을 기념하는 학예회를 하면서 흑인 영가를 합창으로 부르는 것이다(Munroe, 2015, p. 13, 재인용).

브레슬러의 세 가지 연계 유형에서 음악 학습은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음악을 ‘이용하여’ 다른 교과 학습의 학업을 증진하고자 한다. 2010년 서울에서 열렸던 유네스코(UNESCO) 주최 국제 예술교육 콘퍼런스의 의정서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음악 연계 학습이 옹호되었다. 이 의정서는 “일반 교과 교육과정을 지도하고 이들 교과들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예술 교과들을 사용”하라고 권고하였다(UNESCO, 2006, 석상아 2015, p. 2, 재인용) “예를 들면, 색채나 형태와 같은 미술·건축적 개념을 사용하여 물리·생물·기하학 주제들을 지도”하는 것, 혹은 “음악이나 드라마를 사용하여 언어를 지도”하도록 한 것이다(UNESCO, 2006, 석상아 2015, p. 3, 재인용).

음악을 “이용한” 연계 학습은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인기를 누려 왔다. 예를 들어, 안, 카파로, 킬먼(An, Capraro, & Tillman, 2013)은 음악을

사용하여 수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이 더욱 상승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학과 음악을 연계하여 지도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숫자 감각과 대수 능력 등이 향상되었다. 또한 3학년 학생들은 작곡과 건반악기 연주 활동을 통하여 선들의 패턴을 인지하였고 기하학적 도형을 측정할 수 있었다.

미술 학습을 위하여 음악을 연계하는 전략들도 국내·외적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파블로브와 아타나시오(Pavlov & Athanasiou, 2015)에 따르면, 미술 작품의 구성 요소들에 대응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가락, 셈여림 등을 가지는 음악을 함께 들려주면 학생들이 미술 작품을 더 오래 집중하여 감상하고 해석도 더 잘 할 수 있었다. 이 때 음악은 “관람자의 미술 감상 기술을 촉진하고...성찰적 감상자로” 이끌었다(p. 21). 우리나라에서 신재한(2012)은 음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 명화 감상 기술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는 형태의 교과 연계 교육은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민경숙(2013)은 높은 학업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음악을 포함한 예술을 사용하는 것이 예술을 매우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먼로(2015)는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는 음악 연계 교육이 음악 수업을 “다른 수업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p. 21).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는 형태의 연계 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Russel-Bowie, 2006; Stroke, 2004; Wong, 2012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음악 교과의 위상이 나날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음악 연계 교육은 여전히 여러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것이 음악 교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대중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알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cripp & Gilbert, 2016; UNESCO, 2006).

미국의 정통적인 음악학교 중 하나인 뉴잉글랜드 음악원(New England Conservatory)이 이러한 형태의 음악 연계 교육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0년에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교수 및 학생들은 ‘교육에서의 음악을 위한 전국 컨소시엄(Music-In-Education-National-Consortium, 약칭 MIENC)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수준 높은 음악 교과를 지도하는 것과 더불어 타 교과를 위해 음악 교과를 수준 높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보스턴 지역의 학교들 및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음악적 이해력이 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졌다고 발표하였다(Scripp, Wong, & Keppel, 2010).

2. 음악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육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음악을 ‘이용한’ 연계교육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이 타 교과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 교과가 음악 학습의 지식을 심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 혹은, 양보하여 생각하더라도, 음악과 타 교과를 동등하게 사용하여 양 교과의 이해를 둘 다 심화시키는 방식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육의 예는 권(Kwoen, 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영상매체 음악을 사용하여 음악을 심도 있게 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반지의 제왕>이나 <E.T.>에 나오는 음악들을 영화의 흐름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연주하였다. 또한 앱이나 미디를 사용하여 영화의 장면에서 어울리는 음악을 창작하고 편집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음악을 분석하고 연주하고 창작할 뿐 아니라 음악이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브레슬러(1995)가 제안한 교과 연계의 네 번째 유형인 동등한 접근은 음악 교과를 타 교과와 동등한 정도로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 유형은 음악과 다른 교과를 동등하게 사용하여 학습 정보를 종합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것을 권한다. 이것은 브레슬러가 가장 지지하는 유형이지만, 또한 현장에서 가장 찾기 힘든 유형이다(Munroe, 2015). 동등한 접근 유형은 음악과 다른 교과 사이에 있는 공통적인 주제나 논제, 개념, 영감의 원천 등을 찾아서 학습할 것을 권한다(Munroe, 2015, p. 13, 재인용). 예를 들면, ‘흑인의 삶’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거신(Gershwin)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Porgy and Bess)> 및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 시기의 미술 작품들을 탐구한다(Munroe, 2015).

스미겔과 맥도널드(Smiegel & McDonald, 2011), 글렌다(Glenda, 2006) 등은 음악과 미술을 연계하는 수업을 진행할 때 공통적 구조 원칙에 근거하라고 제안하였다. 음악의 프레이즈, 음색, 화음, 형식, 양식 등의 구조 원칙은 미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그들은 말한다. 예를 들면 음들이 이루는 프레이즈는 시각적인 패턴에 상응되고, 음색은 색채와 상응되며, 화음은 색채들의 혼합과 상응된다. 이미 1844년에 작곡가 베를리오즈(Berlioz)는 “음악에서의 악기 사용법은 그림에서의 색채 사용법과 똑같다”고 말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화가 들라크루아(Delacroix)는 “색채란 묘사되는 대상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순수하게 추상적인 혹

은 ‘음악적인’ 특질을 가진다”고 말하였다 (Ward-Steinman, 1989).

스미겔과 맥도날드(2011)는 4-8학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20세기 예술 연계 수업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콜라주(Colage)’라는 공통 주제를 사용하여 그리스(Gris), 호크니(Hockney), 존(Zorn), 샬링(Salling), 스타인(Stein) 등의 미술, 음악, 시 작품을 연결시켰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콜라주 작품들을 감상한 후 스스로 음악과 미술과 문학의 콜라주 작품들을 만들었다. 이 때 학생들은 콜라주란 예술적 오브제를 새롭게 배열하거나 다른 오브제들과 병렬하여 배치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스미겔과 맥도날드(2012)는 4-5학년 학생들이 미니멀리즘(Minimalism) 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들은 몇 개의 색깔과 기하학적 패턴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미술, 짧은 동기들을 반복하는 음악, 한정된 단어들의 패턴을 반복하는 시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었다. 학생들은 작품들을 감상한 다음 스스로 미니멀리즘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신체 타악기를 사용하여 미니멀리즘 음악을 창작했다. 학생들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패턴이 있으며 이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티스타, 탄, 포누사미 및 야우(Bautista, Tan, Ponnusamy, & Yau, 2016)는 ‘큰 개념’에 초점을 맞춘 예술 연계 교육을 제안했다. 싱가포르의 중학교에서 실행된 이들의 예술 연계 교육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노출’ 단계로서, 여기서 학생들은 ‘공간’이라는 큰 개념과 관련된 예술작품들을 감상하고 분석했다. 두 번째 ‘실험’ 단계에서, 학생들은 공간에 대한 타인의 작품을 탐구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작품을 창작했다. 마지막 ‘표현’ 단계에서, 학생들은 공간에 관한 자신만의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예술작품을 창조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무용·음악·드라마·미술의 교차점을 찾을 수 있었다.

Ⅲ. 음악·미술 연계 프로그램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먼로(2015)가 제시한 예술 연계수업의 3단계 절차를 사용하며, 또한 브레슬러(1995)의 동등한 연계 유형에 근거한다. 먼로가 제시한 3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으로 아는 작품으로부터 시작한다. 둘째, 예술 사이에 있

는 논리적 연관을 찾는다. 이와 관련하여, 바렛(Barret, 2006)은 논리적 연관을 각 예술에 영향을 미친 영감이나 역사적 사건에서 찾을 것을 제안했으며, 스미겔과 맥도널드(2011, 2012), 파블로브와 아타나시오(2015)는 형식이나 양식과 같은 구조적 원칙에서 찾으라고 했다. 셋째, 다른 예술 전문가와 교류한다.

먼로(2015)의 3단계 절차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본 연구자가 잘 아는 다문화 예술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음악은 하와이(Hawaii)의 훌라(Hula)와 직물, 뉴질랜드(New Zealand)의 활동 노래(action song)와 춤, 사모아(Samoa)의 동요와 춤 등 폴리네시아(Polynesia)의 음악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나라의 전통 노래 및 건축·미술과 비교되었다.

둘째, 다문화 음악과 미술 사이에 있는 논리적 연관을 찾았다. 본 연구에서 논리적 연관은 바렛(2006)이 제안한 역사적 사건이며 그것은 예술의 ‘서구화’라는 개념이었다. ‘서구화(Westernization)’란 어떤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를 접하여 변화하는 문화접변의 한 형태이다. 19-20세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많은 문화는 서양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이러한 서구화는 이들 지역의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본 연구자는 2명의 미술전문가(큐레이터 및 교수)와 교류하였다. 이들 미술전문가들과 교류한 목적은 19세기 미술의 세계적 흐름에 대한 필자의 지식을 확인받고 다문화 미술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비서구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서구 화가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하는 다문화 미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미술 활동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음악·미술 연계 프로그램은 폴리네시아 지역의 음악을 미술과 연계함으로써 예술의 서구화라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 교과에 나오는 우리나라 근대사와 연결하여 학습할 수도 있다. 본 프로그램의 연계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1]처럼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 ‘서구화’를 중심으로 한 음악·미술 연계 프로그램의 내용

2. 세부 내용

본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 ‘서구화’라는 주제를 공통으로 하여 음악과 미술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음악과 다른 교과와의 연결이 유기적이고 타당”하게 한다(Barret, 2001, p. 28).
- 음악과 다른 예술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적 혹은 개념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 음악과 미술의 주요 작품들을 감상하고 연주하고 실습한다.

2) 방침

- 음악을 중심으로 한 예술 연계 수업을 구성하여, 다른 예술이 음악적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한다.
- 학생 중심의 수업을 설계한다.
-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시되는 내용과 정보가 정통성을 담도록 한다.

3) 주제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박용조, 원승연, 홍미화, 권윤경, 2016)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19세기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고, 결국 조선은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을 통하여 개항을 하게 되었다(박용조, 원승연, 홍미화, 권윤경, 2016). 조선의 개항은 서구화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음악과 음악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션 학교에서 처음 가르치기 시작된 서양식 노래들이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민 다수에게 확산되었다. 1906년의 보통학교령에 따라 <보통학교 창가집>이라는 최초의 음악 교과서가 발간되었다(신계휴, 2001). 이후 우리나라의 음악과 음악교육은 서구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서구화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던 현상이 아니었다. 19세기 무렵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유럽인들이 제3세계라고 부른 나라들 모두가 서구화를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제국주의와 같은 외세의 압력과 연

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폴리네시아 지역을 초점으로 삼는다. 서구인들은 오세아니아 지역을 3부분으로 구분했으며, 폴리네시아는 그 중의 가장 넓은 지역이다.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폴리네시아의 원주민들은 서로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가진다. 이 지역은 18세기에 유럽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고, 19세기에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의 국가들에 합병되었다(McLean, 1999).

때를 같이 하여 폴리네시아의 음악은 서구화되기 시작하였다. 서양식 노래들이 작곡되고 많은 전통 노래가 서양식으로 개조되었다. 이 때 만들어진 뉴질랜드의 활동 노래나 하와이의 하파 하올레(hapa haole) 등의 장르들은 짧고 규칙적인 프레이즈, 단순한 화성과 리듬 패턴, 단순한 형식(대부분 8, 16마디)들을 가졌다(Elbert and Mahoe, 1970; Kanahale, 19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들은 가사의 소재나 발성 양식, 리듬, 악기 등 많은 면에서 각국 고유의 전통과 정서를 간직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예술가들 또한 비서구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32년 모로코를 방문했던 들라크루아는 북아프리카의 화려한 색채에 매료된 후 화려한 색채와 굵이치는 곡선을 가진 화풍을 보여주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1860년 프랑스에 수입된 일본의 목판화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Strickland, 2010). 더 나아가서 고갱(Gauguin)은 1891년 남태평양의 타이티 섬으로 가서 자연에 가까운 삶을 추구하였으며, 원시 미술의 영향을 받아 단순화된 형태와 대담한 색채를 사용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었다(Beckett, 2003). 1889년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공연된 아시아 음악에 매료된 드뷔시는 이로부터의 영감을 바탕으로 온음음계를 만들고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발전시켰다(Levy, 1983).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위한 음악·미술 연계 교수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음악과 미술을 연계하는 공통 주제는 ‘서구화’이며, 이를 위하여 폴리네시아의 다양한 전통 음악과 미술, 근·현대 음악과 미술을 탐색한다. 본 프로그램은 2015 음악과 개정 교육과정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6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6음01-0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6음01-03]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 [6음02-0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6음02-02]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교육부, 2015). 본 프로그램에서 학습되는 제재는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의 주요 학습제재

구분		악곡/작품	출처
음악	전통	- <고사리꺾자> (우리나라) - <아 힐로 아우 (A Hilo Au)> (하와이)	장기범 외 (2015) Anderson and Campbell (1996)
	서구	-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우리나라) - <푸푸 히누히누(Pupu Hinu Hinu)> (하와이) - <타고 이레 (Tago ire)> (사모아) - <티티 토리아(Titi Torea)> (마오리) - <알로하오에 (Alohao E)> (하와이)	장기범 외 (2015) Hausmann (1968) Droxd, & Tuiasosopo (2008) TEARA (2017) Liliuokalani Trust (1999) 이은적 외 (2015)
미술	전통	- 경복궁 근정전 (우리나라) - 김홍도 <서당> (우리나라)	이은적 외 (2015)
		- 타파(tapa) 직물 (폴리네시아)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2017)
	서구	- 배재학당 건물 (우리나라) - 이화학당 보통과 수업 (우리나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2017) 이화여자고등학교(2018)
		- 하와이 켈트 (하와이) - 폴리네시아 현대 의상 (폴리네시아)	Serrao et al. (2007) 이은적 외 (2015)
		- 고갱의 <타이티의 여인들>, <타이티의 두 여인> (타이티) - 애니메이션 <모아나>, <릴로와 스티치> (폴리네시아)	Cachin (1996) www.youtube.com

4) 제재 설명

(1) <고사리꺾자>

<고사리꺾자>는 <강강술래> 놀이 중의 하나로서 자진모리장단의 전래동요이다. <고사리꺾자> 놀이는 원을 그리고 돌다가 사람들이 손을 잡은 채 앉으면, 제일 앞사람이 일어나 앉아있는 사람들의 맞잡은 손을 끊고 지나간다. 잇달아 다음 사람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이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사람의 손을 끊고 지나간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돌면 다시 원을 만든다(장기범 외, 2015).

(2) <파란 마음 하얀 마음>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은 어효선 작사 한용희 작곡의 동요이다. 1956년 당시 서울중앙방송국(현재 KBS)에서는 ‘밝고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때 선정된 100곡의 동요 중의 하나가 이 곡이다. 한용희(1931-2014)는 서울중앙방송국 프로듀서 겸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꼬마 눈사람>, <봄 오는 소리>, <고향땅> 등 많은 동요를 작곡하고 <누가 누가 잘 하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한용희, 1987).

(3) <푸푸 히누히누 (Pupu Hinuhinu)>

이 곡은 서양의 영향을 받은 앓아서 추는 홀라로 데샤-비머(Desha Beamer)에 의해 작곡되었다. 하와이에서 홀라는 노래와 춤 둘 다를 의미한다. 또 홀라의 춤은 서서 추는 것과 앓아서 추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앓아서 추는 홀라에 속한다. <푸푸 히누히누>라는 제목은 “밝게 빛나는 조가비”라는 뜻이다. 이 곡은 또한 하와이의 니하우(Niihau) 섬을 대표하는 노래이다(Hausmann, 1968).

(4) <아 힐로 아우(A Hilo Au)>

앓아서 추는 하와이 전통 홀라이다. 이 곡은 전통 홀라의 전형적인 형태대로 2/4박자의 단순한 리듬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노래 시작 전에 선창가가 가사 첫 구절을 낭독한다. 홀라는 각 프레이즈를 반복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 마지막 구절의 가사는 거의 모든 홀라와 마찬가지로 “Ha’ina mai ka puana”(이렇게 내 이야기가 끝난다)이다. 노래의 가사는 하와이의 다양한 지역의 특징을 묘사한다(Anderson & Cambell, 1996)

(5) 하카(Haka)

하카는 마오리 족의 전통 노래 혹은 외침이다. 하카라는 용어도 또한 노래와 춤(신체동작)을 둘 다 나타낸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무릎을 약간 벌린 채로 허벅지와 팔꿈치 등을 치고 때로는 혀를 내밀기도 한다. 하카는 과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혹은 단순히 오락을 위하여 연주되었다. 오늘날에는 럭비나 축구 같은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뉴질랜드 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Underwood, 2008).

(6) 폴리네시아의 슬릿드럼(Slit Drum)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나무토막에 홈을 파고 속을 긁어서 슬릿드럼을 만든다. 슬릿드럼의 크기와 이름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사모아에서는 크기에 따라 파테(Pate), 라리(Lali), 로고(Logo)라고 부른다. 이 중 파테가 가장 작고 로고가 가장 크다. 슬릿드럼은 중요한 인물이나 음식 메뉴 등 전달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리

듬 패턴을 가진다(McLean, 1999, Underwood, 2008).

(7) <타고 이레(Tago Ire)>

코코넛 껍데기를 악기처럼 사용하여 라인댄스를 추며 부르는 사모아의 서양식 동요이다. 4/4박자, 한 도막 형식의 악곡으로 가사의 운율을 자연스럽게 모방하는 리듬을 가진다. 학급에서는 코코넛 껍데기 대신 손뼉을 치거나 캐스터네츠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가볍고 경쾌한 소리를 내도록 한다(Drozdz & Tuiaosopo, 2008).

(8) <티티 토리아(Titi Torea)>

2명 이상이 바닥에 앉아서 부르는 3박자의 마오리 노래이다. 사람이 많을 때는 2열로 앉아서 서로 마주 보고 신체동작을 한다. 각 사람이 티라카우(ti rakau)라고 부르는 1쌍의 막대기를 가진다. 마오리 사람들이 즐기는 동작은 한 손으로 막대기를 던지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던지는 막대기를 받는 동작이다. 가사는 떠나간 연인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다(TEARA, 2017).

(9) <알로하오에(Alohao e)>

노래와 피아노, 오르간과 기타 등에 능했던 하와이의 마지막 여왕 릴리우오칼라니(Liliuokalani, 1838-1917)가 39-40세이던 1877-1878년에 사이에 작곡한 노래이다. “이별의 노래”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여왕 스스로는 이것은 “사랑의 노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릴리우오칼라니 여왕은 100 여 곡이 넘는 서양식 음악을 작곡했으며, 말년에는 전통 양식의 하와이 음악을 기보하기도 하였다(Liliuokalani Trust, 1999).

(10) 스틸 기타(Steel Guitar)

19세기 전반 유럽인들은 베이스 비올(bass viol), 바이올린, 기타 등의 현악기를 폴리네시아에 유입했다. 19세기 후반에 기타는 하와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악기가 되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케쿠쿠(Kekuku)는 기타의 현들을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고 금속 조각으로 눌러서 손쉽게 코드가 소리 나도록 변형하여 스틸 기타를 만들었다(Anderson & Cambell, 2010; Kanahale, 1979; Underwood, 2008).

(11)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국보 제233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복궁의 정전(正殿)으로

신하들의 조회의식과 대례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등 주요 의식을 치렀던 장소이다. 1395년에 처음 지어졌으나 임진왜란으로 불타고 1868년 경복궁 중건과 함께 현재의 건물이 지어졌다. (문화재청 경복궁, 2018).

(12) 김홍도의 <서당>

김홍도(1745-1786 이후)는 조선 왕조 후기 미술의 부흥을 가져온 화가로서 서민들을 그린 풍속화로 유명하다. <서당>은 <단원 풍속도첩>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 중의 하나로 방건을 쓴 유생의 옷차림을 한 훈장을 중심으로 쪼그리고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묘사한다(국립중앙박물관, 2018).

(13) 이화학당 보통과 수업

1886년 스크랜턴(Scranton)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으로 근대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화학당의 교명은 1887년 고종 황제가 하사하였다. 최활란, 김활란, 류관순 등 수많은 여성 명사들을 배출하였다. 1929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와 이화여자보통학교로 행정을 분리하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고등학교로 전해지고 있다(이화여자고등학교, 2018).

(14) 타파 (Tapa)

폴리네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나무껍질로 만드는 전통 직물을 타파라고 부른다. 타파의 명칭이나 타파의 장식 방법, 염색법, 디자인은 폴리네시아의 각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하와이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틀을 찍어서 무늬를 만드는 반면에, 피지에서는 바나나 잎으로 스텐실처럼 무늬를 만든다. 사모아에서는 시아포(Siapo), 하와이에서는 카파(Kapa)라고 부른다(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2017).

(15) 하와이 퀼트(Quilt)

1820년대 하와이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먼 조각과 서양식 바늘을 사용하여 천 조각을 이어붙이는 퀼트 기법을 소개하였다. 1860년대 하와이의 퀼트는 전통적인 문양을 대칭적 모습으로 한가운데에 붙이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퀼트의 색상은 바탕색과 대조적인 색깔을 가지며, 전통적으로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문양을 가진 퀼트가 가장 많다. 문양의 주제는 파파야, 토란, 파인애플이나 물고기처럼 하와이에서 흔한 동식물, 혹은 화산의 여신 펠레(Pele) 등 하와이의 전설에 나오는 주제들이다 (Brustetter and Brunstetter, 2016; Serrao, Serrao, Correia, & Serrao, 2007).

3. 프로그램 실제

이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서구화를 주제로 폴리네시아의 노래와 연주, 공예 미술과 애니메이션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의 예시를 보여준다(<표 2>). 학생들은 폴리네시아의 전통 음악과 근·현대 음악을 전통 직물 및 근·현대 직물 사이에 있는 유사점을 탐구하며, 서구화된 예술의 역사적 맥락, 또한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존되는 전통 문화의 자취를 알게 된다.

<표 2> 음악 미술 연계 프로그램

차시	학습요소	주요 내용 및 활동
1-2	근대화와 서구화	○ 동요를 통하여 보는 우리나라의 서구화 ○ 건축을 통하여 보는 우리나라의 서구화 ○ 그림을 통하여 보는 우리나라의 서구화
		○ 폴리네시아의 지리적 위치 ○ 폴리네시아의 근대화와 서구화 ○ 애니메이션 <모아나> 감상하기
3-4	폴리네시아의 전통 예술	○ 애니메이션 <릴로와 스티치>에 등장하는 홀라 감상하기 ○ 하와이 전통 홀라 <아 힐로 아우> 감상하기 ○ 뉴질랜드 하카 감상하기 ○ 사모아 슬릿 드림 감상하기
		○ 폴리네시아 타파 감상하기 ○ 폴리네시아 전통 의상 감상하기 ○ 폴리네시아의 타파 패턴 색칠하기
5-6	폴리네시아의 근·현대 예술	○ 하와이의 <푸 푸 히누히누> 노래하고 춤추기 ○ 뉴질랜드의 <티티 토리아> 감상하기 ○ <티티 토리아> 공연 동작 미술로 표현하기 ○ 사모아의 <타고 이레> 노래하고 춤추기 ○ 폴리네시아의 스틸 기타 음악 감상하기
		○ 하와이 근·현대 켈트 감상하기 ○ 폴리네시아 현대 의상 감상하기 ○ 하와이 켈트 패턴 만들기
7-8	종합 및 심화	○ 하와이 홀라의 가락 바꾸기 ○ 뉴질랜드 막대기춤 새로운 동작 만들기
		○ 폴리네시아에 매료된 소설가 스티븐슨(Stevenson) ○ 폴리네시아에 매료된 화가 고갱(Gauguin) ○ 고갱의 <타이티의 여인들>과 <타이티의 두 여인> 비교하기 ○ 고갱의 <타이티의 여인들>의 윤곽만 있는 밑그림에 폴리네시아 스타일의 의상 그려 넣기 혹은 그려진 의상에 색칠하기

서구화라는 주제는 초등음악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회 교과에서 근대화의 역사를 학습한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전래동요들과 서양식 동요들 자체가 음악에서 이루어진 서구화의 역사를 암묵적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더불어 진행된 과정일 뿐 아니라(최영자, 1999), 19세기 전 세계를 휩쓴 물결이었다(Kahaele, 1979). 학생들은 폴리네시아 음악과 미술을 탐구함으로써 예술의 서구화라는 문화적 맥락을 볼 수 있다.

이하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은 8차시에 나누어 수업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내용을 조절하거나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1~2차시에는 서구화와 폴리네시아 지역에 대하여 학습하며, 3-4차시에는 폴리네시아의 전통 예술에 대하여, 5-6차시에는 폴리네시아의 근·현대 예술에 대하여 배운다. 7-8차시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고, 당시에 폴리네시아에 관심을 가진 유럽인들에 대하여 탐구한다.

프로그램의 총 8차시 수업 중에서 5-6차시 “폴리네시아의 근·현대 예술”을 주제로 한 총 80분 수업의 교수 학습안을 <표 3>에 제시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현장에 사정에 따라 가감되거나 조절되어 사용할 수 있다.

<표 3> 5-6차시 교수 학습안

제재	푸푸 히누히누	지역	폴리네시아
학습 목표	- 폴리네시아 지역의 근·현대 음악을 노래 부르고, 신체 표현하고, 감상한다. - 폴리네시아 지역의 근·현대 직물과 의상을 감상하고, 직접 문양을 제작한다. - 폴리네시아 예술의 서구화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애니메이션 <릴로와 스티치> 감상하기 - 학생들은 애니메이션 <릴로와 스티치> 중 홀라 장면을 감상한다. - <릴로와 스티치>는 폴리네시아의 타이티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은 타이티의 춤이 아니라 하와이 홀라를 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 타이티 춤과 하와이 홀라 비교하기 - 학생들은 동영상 자료를 통하여 타이티 춤과 하와이 홀라를 비교한다. (타이티 춤이 동작이 더 격렬해 요.)	*동영상 자료 (<릴로와 스티치>) *동영상 자료 (타이티 춤과 하와이 홀라)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홀라 배우기	◎ 하와이의 근·현대 홀라 - 학생들은 하와이의 홀라 <푸 푸 히누히누> 노래를 한 프레이즈씩 따라 부르기로 배운다. - 학생들은 <푸 푸 히누히누>의 홀라 동작을 따라 한다. - 학생들은 <푸 푸 히누히누>의 홀라 동작과 <릴로와 스티치>에 나오는 홀라 동작의 차이점을 찾아본다. (<릴로와 스티치>에서는 서서 홀라를 추는 반면에 <푸 푸 히누히누>에서 앉아서 추어요.) 교사는 홀라에는 앉아서 추는 것과 서서 추는 것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한다. - 학생들은 <푸 푸 히누히누>의 음악적 특징을 찾아본다. (길이가 짧아요. 느린 빠르기예요. 음들이 단순해요.) 교사는 이것이 19세기에 만들어진 자장가라고 말한다. 교사는 이 곡에서 찾을 수 있는 하와이 고유의 특성을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전통적인 홀라 동작을 사용해요. 해변과 조가비를 소재로 사용해요.)	*악보 및 동영상 자료 (<푸 푸 히누히누>)
	막대기춤 감상하기	◎ 뉴질랜드의 근·현대 막대기춤 감상하기 - 학생들은 마오리 족의 막대기춤 <티티 토리아>를 동영상을 통하여 감상한다. - 학생들은 3박자 노래에 맞추어 막대기춤 동작이 3박자로 진행되는 것에 주목한다. - 학생들은 <티티 토리아>에서 발견되는 마오리 고유의 특성을 찾아본다(막대기를 들고 서로 던지면서 춤을 추어요.)	* 동영상 자료 (<티티 토리아>)
	사모아 동요 배우기	◎ 공연 모습 미술로 표현하기 - 학생들은 <티티 토리아> 무대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티티 토리아> 무대 인물의 동작에서 관찰한 동세, 비례, 혹은 양감을 살려 그림으로 그리거나 환조로 표현한다.	*5학년 미술 교과서, 철사, 지점토, 수채용구 등
	스틸 기타 음악 감상하기	◎ 사모아의 현대 동요 - 학생들은 사모아의 동요 <타고 이레>를 춤과 함께 노래 부른다. 학생들은 서양식으로 작곡된 노래지만 사모아의 전통적인 코코넛 껍데기 악기와 신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악보
		◎ 스틸 기타 음악 감상하기	*동영상 자료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 학생들은 스틸 기타로 연주하는 <페어 하와이(Fair Hawaii)>를 감상한다. 학생들은 스틸 기타가 유럽의 기타를 변형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학생들은 스틸 기타가 어쿠스틱 기타와 다른 점을 찾아본다(눅혀서 연주해요. 금속 조각으로 현을 눌러요.) ◎ 폴리네시아의 현대 직물 - 학생들은 19세기 이후 하와이의 타파를 대신한 켈트 이불을 사진을 통하여 감상한다. 학생들은 유럽의 켈트와 하와이 켈트를 비교하여 감상한 다음 하와이 켈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본다. (조각을 모은 것이 아니라 커다란 장식을 통째로 붙였어요. 장식의 모양이 대칭적이에요. 장식과 바탕색의 대비가 강해요. 문양이 파인애플과 파파야 등 열대 과일이거나 돌고래 등 물고기 모양이에요.) ◎ 폴리네시아의 현대 의상 - 학생들은 현대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알로하셔츠, 무무, 홀로쿠, 재킷과 함께 입는 라바라바(남녀 모두 입는 스커트) 등의 의상을 사진 자료를 통하여 감상한다. 학생들은 이 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서구의 영향과 폴리네시아 고유의 특성을 둘 다 찾아본다 (와이셔츠와 모양이 비슷해요. 잠옷처럼 헐렁한 드레스예요. 남자들이 치마를 입어요.) ◎ 하와이 켈트 만들기 - 학생들은 색종이를 사용하여 하와이 켈트의 문양을 만든다. 학생들은 색종이를 4등분 되도록 접은 다음 원하는 가운데 꼭지점을 중심으로 꽃이나 과일을 그린다. 다음에 잘라서 종이를 펼치면 대칭 형태의 꽃이나 과일 모양이 나온다.	(스틸 기타로 연주하는 <페어 하와이>) *유럽과 하와이 켈트 사진 자료 *폴리네시아 의상 사진 자료 *색종이, 가위, 연필
정리 및 평가	정리하기	◎ 정리 우리나라 뿐 아니라 폴리네시아에서도 서구화라는 역사적 현상이 일어났고, 이러한 현상은 음악과 미술 등의 예술에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화된 예술 속에서 우리는 그 나라만의 특성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점에서 그랬나? (춤이나 악기, 문양, 주제 등이예요.)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평가하기	◎ 평가 <푸 푸 히누히누>를 춤과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가? 켈트 문양을 만들 수 있는가? 폴리네시아 근·현대 예술에서 나타나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가?	

IV. 결론

음악과 미술을 연계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심화할 뿐 아니라, 폭넓은 맥락 안에서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연구는 공통 주제를 통하여 음악과 미술을 연계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먼로(2015)의 3단계 절차 및 브레슬러(1995)의 동등한 연계 유형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발생한 근대화의 흐름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각국의 문화적 전통은 변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또한 지켜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적인 주제를 통한 음악·미술 연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다문화 음악 학습의 폭과 깊이를 더하며, 예술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알게 할 수 있다. 둘째, 음의 구성이나 프레이즈의 반복과 같은 음악적 개념을 반복되는 패턴과 같은 시각 예술적 대응물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의 이론적 개념을 심화하고 감상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폴리네시아의 전통과 근·현대 음악 및 미술을 폭넓게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적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이 적극적 감상과 연주, 공예품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의 주도력을 신장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은 예술이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발생하며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다는 것, 또한 문화접변을 통한 예술의 변이 속에서도 전통은 끊임없이 보존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예술 영역과의 연계 학습 뿐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적 공

동체 역량을 강조한다(교육부, 2015, p. 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가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다른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이해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 역사를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음악과 교육과정**. 세종: 저자.
- 권수미 (2012). 예술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음악교육연구**, 41(2), 67-100.
- 노용 (2005). 미술과의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의 예 - 초등학교 3·4학년 ‘전통 민속놀이’를 바탕으로. **미술교육논총**, 19(2), 381-414.
- 민경숙 (2013). 홀리스틱 예술 통합 교육과 교육과정. **2013학년도 한국홀리스틱 교육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3년 11월. 87-123.
- 박용조, 원승연, 홍미화, 권윤경 (2016). **5-6학년 사회**. 세종: 교육부.
- 박지원 (2002). 싸이네스테시아의 총체적인 예술 형태. **음악연구**, 28, 47-82.
- 신계휴 (2001). 조선총독부시기의 초등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석상아 (2015). Adoption of UNESCO's Arts in Education Approach to Teaching Music: Barriers Perceived by Music Teachers.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한구, 김승호 (1999).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적, 김향미, 문은희, 박문수, 류청민, 홍희민 (2015). **초등학교 미술 5~6**. 서울: 금성출판사.
- 장기범, 강연심, 김경자, 김경화, 김희숙, 윤성원, 임원수, 조성기, 표태호, 홍종건 (2015). **초등학교 음악 5~6**. 서울: (주) 미래엔.
- 주대창 (2002). 통합적 음악교육(Integrative Music Education), **음악교육**, 2, 365-368.
- 최영자 (1999). **한말 개화기의 음악교육**. 서울: 음악춘추사.
- 한용희 (1987). **한국동요음악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한윤이 (2006). 음악과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 간 통합지도방안. **초등교과교육연구**, 7, 71-90.
- Abeles, H. F., & Custodero, L. (2017). **음악교육의 주요 이슈**. 김용희, 정지원, 오지향, 이수진, 신지혜, 정주연 역. 서울: 음악세계.
- An, S., Capraro, M. M., and Tillman, D. A. (2013). Elementary teacher integrate music activities into regular mathematics lessons. *Journal for Learning through the Arts*, 9(1), 1-19.
- Anderson, W. M., & Campbell, P. S. (Eds.) (1996). *Multicultural perspectives*

- in music education (2nd ed.)*. Reston, VA: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 Anderson, W. M., & Campbell, P. S. (Eds.) (2010).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 music education. Vol. II (3rd ed.)*. Lanham, ML: Rowman & Littlefield Education.
- Barrett, J. R. (2001). Interdisciplinary work and musical integrity. *Music Educators Journal*, 87(5), 27-31.
- Barrett, J. R. (2006). Hightways and byways: Interdisciplinary, teacher knowledge, and the comprehensive music curriculum. *The Mountain Lake Reader: Conversations on the Study and Practice of Music Teaching IV*, 2006, 24-37.
- Bautista, A., Tan, L. S., Ponnusamy, L. D. & Yau, X. (2016). Curriculum integration in arts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8(5), 610-629.
- Beckett, W. (2003). **웬디 수녀의 미국 미술관 기행 1**. 이영아 역. 서울: 예담 출판사.
- Brooks, J. & Brooks, M. (1999).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추병완, 최근순 역. 서울: 백의
- Brunstetter, W., & Brunstetter, J. (2016). *The Hawaiian quilt*. Uhrichsville, OH: Shiloh Run Press.
- Bresler, L. (1995). The subservient, co-equal, affective, and social integration styl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arts.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96(5), 31-37.
- Cachin, F. (1996). **고갱 고귀한 야만인**. 이희재 역. 서울: 시공사.
- Droz, K. S., & Tuiaosopo, K. M. (2008). *Cultural studies and Samoan songs for children*. American Samoan Council on Arts, Culture, and Humanities.
- Efland, A., Freeman, K., & Stuhr, P. (1996). *Postmodern art education: an approach to curriculum*. Reston, VA: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 Elbert, S. H., & Mahoe, N. (1970). *Na mele o Hawaii nei 101 Hawaiian songs*. Honolulu, HI: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 Forgaty, R. J., & Stoehr, J. (2008). *Integrating curricula with multiple intelligence: Teams, themes, and threads*. Thousand Oaks, CA: Corwing Press.
- Glenda, C. (2006). Play me a picture: Paint me a song: Integrating music learning with visual art, *General Music Today*, 19(2), 7-11.
- Hausmann, R. L. (1968). *Hawaii music in its history*. Tokyo: Charles E. Tuttle Company, Inc. of Rutland.
- Kahahele, G. S. (1979). *Hawaiian music and musicians: An illustrated history*. Honolulu, HI: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eown, D. (2013). Discovering the lost ark of possibilities. *Music Educators Journal*, 70-76.
- Levy, K. (1983). *Music: A listener's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Lilioukalani Trust. (1999). *The queen's songbook: Her majesty Queen Lili'uokalani*. Honolulu, HI: Hui Hanai.
- McLean, M. (1999). *Weavers of song: Polynesian music and dance*.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ukarovsky, J. (1978). *Structure, sign, and func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unroe, A. (2015). Curriculum integration in the general music classroom. *General Music Today*, 29(1), 12-18.
- Read, H.(1958). *Education through art*. London: Faber and Faber.
- Scripp, L. & Gilbert, J. (2016). Music plus music integration.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117(4), 186-202.
- Serrao, P., Serrao, J., Correia, R., & Serrao, C. (2007). *The Hawaiian quilt: The tradition continues*. Honolulu, HI: Mutual Publishing, LLC.
- Smigel, E., & McDonald, N. (2011). Piecing together the 20th century. *General Music Today*, 24(3), 10-16.
- Smigel, E., & McDonald, N. (2012). Lessons that bear repeating and repeating that bears lessons: An interdisciplinary unit on principles of Minimalism in modern music, art, and poetry (Grade 4-8). *General Music Today*, 26(1), 5-10.

- Strickland, C. (2010). *클릭, 서양미술사 동굴벽화에서 개념미술까지*. 김호경 역. 서울:예경.
- Underwood, D. (2008). *Australia, Hawaii, and the Pacific*. Chicago: Heinemann Library.
- Ward-Steinman, D. (1989). *Toward a comparative structural theory of the arts*. San Diego, CA: San Diego State University Press.
- Wiggins, G., and McTighe, J. (2006). *Understanding by design (2nd ed.)*.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Wong, M. W. (2012). Integrated arts curriculum in Hong Kong secondary schools.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113, 100-105.
- 국립중앙박물관 (2018). 서당, <단원 풍속서첩>. Retrieved February 21, 2018 from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552>
- 문화재청 경복궁 (2018). 정전 영역. Retrieved February 21, 2018 from 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data/data_03_03.asp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2017). 박물관 전경. Retrieved February 21, 2018 from <http://www.much.go.kr/cooperation/net/app.do>.
- 이화여자고등학교(2018). 이화백년사. Retrieved February 21, 2018 from <http://www.ewha.hs.kr>.
- Pavlov, V., & Athanasiou, G. (2014).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for understanding artworks: The role of music in visual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the Arts*, 15(11), Retrieved February 21, 2018 from <http://www.ijea.org/v15n11/>.
- Russell-Bowie, D. (2009). Syntegration or disintegration? Models of integrating arts across the primary curriculum.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the Arts*, 10. Retrieved February 21, 2018 from <http://www.ijea.org/v10n28/v10n28.pdf>.
- Scripp, L., Wong, R., & Keppel, P. (2010). *The Music-in-Education National Consortium Dissemination Project: 2008-2010 Final Project Report*. Retrieved February 21, 2018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81589930>.

- TEARA.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2017). Retrieved February 21, 2018 from <https://teara.govt.nz/en/photograph/39348/women-play-titi-torea-around-1910>
-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2017). Tapa Cloth. Retrieved February 21, 2018 from <http://natural-history.uoregon.edu/collections/web-galleries/tapa-cloth>
- UNESCO. (2006). *Roadmap for Arts Education*. Retrieved February 21, 2018 from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CLT/CLT/pdf/Arts_Edu_RoadMap_en.pdf.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n Interdisciplinary
Music and Art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Kim, Yong Hee

Music and art disciplines are appropriate to connect each other since both bring about aesthetic experiences of lear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interdisciplinary music and art program for upper elementary students. To do this, the writer examined the theories and issues regarding the interdisciplinary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suggestion of Munroe (2015). The program was designed to study the music and art of Polynesia based on a common theme of Westernization of arts. Through this program, it is expected that the students are able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social contexts by expanding the breadth and depth of multicultural music learning.

Key words: interdisciplinary education,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music and art
interdisciplinary program

투고일: 2017년 11월 30일, 심사(수정): 12월 27일(1월 8일), 게재확정일: 1월 8일